

2장.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심

하늘에서 몰려온 폭풍 속에서 여호와와 영광을 본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본다. 그들은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을 일삼는다. 2장에서 ‘패역함’ ‘배반’ [반역] ‘완고함’ 등의 단어가 10여 차례 나온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었다(3:11).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났고(597년, 592년),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587년).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으면서 멸망에 대한 에스겔의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여전히 완고하여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청중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을 보내신다.

1.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에스겔을 보냄 (2:1-7)

1) 여호와와 신이 임함 (2:1-2)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인자’ 라고 부르면서 자기 발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 에스겔은 스스로 서지 못하고 여호와와 신이 그를 붙잡아서 일어설 수 있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인자’ 라는 말은 ‘연약한 인간’ 을 표시한다. 이 말은 에스겔서에서 93회 사용되는데 이것은 다니엘 7:13에서 종말론적 인물을 가리키는 것과 다르다.

2)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음 (2:3-7)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고이]에게 보내신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계속 여호와께 반역하였고, 이제 ‘이방 사람’ 처럼 되었다. 그들의 얼굴은 뻘뻘하고 마음은 굳어 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예언자를 보내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2:5, 7).

예언자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이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가시와 찔레와 전갈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려고 하는 청중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는 말을 반복하신다. 듣는 사람들의 얼굴을 무위하지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 비록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전한 말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2. 두루마리를 먹음 (2:8-10)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도록 하셨다.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음식을 먹지만, 이 두루마리는 여호와께서 펴서 먹여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패역한 족속처럼 패역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먹으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면서 먹여 주셨다. 두루마리는 양피지에 쓴 것으로 펼치면 대체로 한 면에만 글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루마리에는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다. 이방 사람처럼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말은 심판과 재앙의 말이었던 것이다.

묵상과 실천:

이스라엘과 열방

성경에서 열방은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서의 열방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대상으로서의 열방이다. 두 가지 개념은 긴밀히 연결되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열방들을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을 약속하였다. 출애굽에서도 열방의 대표로서의 애굽에 심판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열국 중에서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출 19:4-6).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신 28:1; 참조 출 19: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신 28:1)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신 28:13) 하실 것이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쳤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민족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서의 ‘열방’ 이 된 경우가 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함으로써 그들이 열방과 같음을 드러냈고 하나님께서는 번개로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셨다(삼상 8장). 시편 2편의 열방들의 분노도 단순히 이방 나라의 분노만이 아니다. 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와 율법을 주야로 목상하면서 살지 않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거부하는자가 열방에 속한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반역한 열방’ 으로 규정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여호와께 적대적인 편에 서게 됨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러난 셈이다.

시편 2편의 뜻은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사도들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중 예수를 거스려” (행 4:27)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음을 말한다. 이방 나라처럼 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결탁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면서 일어났다. 바울의 표현대로, “이 세대의 관원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반역을 꾀하였다(고전 2:8).

그러나 이러한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열방을 구원하실 근거를 마련하였다. 십자가를 통해 만민을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들의 반역은 계속된다. 세상과 육신은 사탄의 지도 아래에서 연합 전선을 펴서 교회를 공격한다. 그럴 때에 교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세상의 공격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핍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교회 안의 세상적인 요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역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대립이 계속되지만 결과는 확정되어 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오늘도 신령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나아가야 한다.